동국대 19대 총장 예비후보에게 듣다

동국대 총장 선거 예비 후보 10명이 1월 18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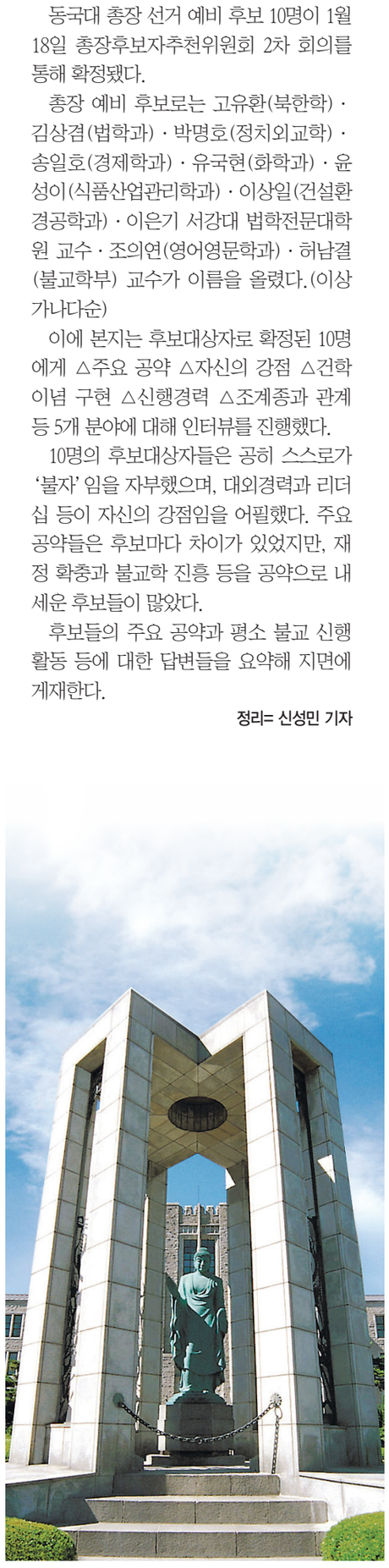
총장 예비 후보로는 고유환(북한학) · 김상겸(법학과) · 박명호(정치외교학) · 송일호(경제학과) · 유국현(화학과) · 윤성이(식품산업관리학과) · 이상일(건설환경공학과) ·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의연(영어영문학과) · 허남결(불교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상 가나다순)

이에 본지는 후보대상자로 확정된 10명에게 △주요 공약 △자신의 강점 △건학이념 구현 △신행경력 △조계종과 관계 등 5개 분야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10명의 후보대상자들은 공히 스스로가 '불자' 임을 자부했으며, 대외경력과 리더십 등이 자신의 강점임을 어필했다. 주요 공약들은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재정 확충과 불교학 진흥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많았다.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평소 불교 신행활동 등에 대한 답변들을 요약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신성민 기자





고 유 환 교수
(북한학)



김 상 겸 교수
(법학과)



박 명 호 교수
(정치외교학)



송 일 호 교수
(경제학과)



유 국 현 교수
(화학과)

"불교 융합 연구·인성교육 지원" 한목소리

학교 발전 위한 주요 공약은

고유환 교수는 분권형 책임경영을 비롯해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특성화 △로터스관 랜드마크화 등을 꼽았다. 특히 고유환 교수는 "로터스관에 불교박물관 · 세계불교선원 · 국제회의장 · 예식장 · 기타 복지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며 "세계불교선원에는 만불봉안을 목표로 기금 모금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겸 교수는 △인재불사 △재정확충 △복지확대 등 세 방면에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김상겸 교수는 "동국대 건학이념을 통한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면서 "대학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과 기부금 다양화, 기업과의 협력 관계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명호 교수는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 수요자와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대학 혁신' 과 '자율과 책임의 대학 혁신' 을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박명호 교수는 " '설득과 동참의 리더십, 공공성의 리더십' 으로 동국대의 10년 이상의 미래를 결정하는 첫 4년을 이끌 것"이라며 " '동국가족의 교무 참여와 평가의 제도화, 교협의 적절한 역할 부여를 통한 공공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일호 교수는 "화쟁사상의 실천으로 존중과 신뢰의 동국문화를 정립할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세계 수준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과 연구 모델을 개발하고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유국현 교수는 "미래 수요를 교육에 반영" 할 것을 주요공약으로 밝혔다. 특히 연구 지원 시스템을 '선-투자, 후-성과' 체계로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학교 행정 체계에 자율과 분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성이 교수는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 이라는 비전 아래 △건학이념 △지속경영 △연구 영역 △교육 영역 등 4개 분야 역량 강화 2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역량 결집과 조직 혁신을 통한 종립대학의 존재 가치 향상 · 대학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윤성이 교수는 "세계대학 평가 100위 이내 10개 학과 보유 대학 및 국내 10위권 대학 위상을 비롯해 1000억 원대 연구비 조성 · 50%대 등록금 의존율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교수는 △학교 공동체성 회복 △전통 자산 혁신적 확산 △안정된 재정확충 등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상일 교수는 "학생회-교수협-노조와의 협력적 관계를 회복하고 보직자 인사 추천제 · 학장 임명 거부권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기 교수는 △이공대 · 연극영화학부 집중 육성 △야간 로스쿨 설립 △명상 일상화 통한 인재 양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공대를 집중 · 육성해 국가연구지원금을 유치하고, 동문 스타들을 활용한 영화 제작과 그 수익을 학교로 환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의연 교수는 "공감, 공유, 공영의 경영가치를 기반으로 내 · 외부 자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겠다"며 'PROMISE 2019~2022' 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교육 · 연구 시너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연구 전진기지인 '동국융합원' 설립과 지역사회 · 구성원과의 연합을 위해 고양바이오메디컬캠퍼스에 부총장 · 행정처장 직제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전략적 자원관리 · 기부금 유치 등을 통해 재임 동안 2200억 원의 재원 조성을 공언했다.

허남결 교수는 'One Team 동국' 을 목표로 내걸고 학교 건학 이념인 '지혜, 열림, 자비, 비움, 정진' 의 가치를 학교 경영에 접목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허남결 교수는 "건학 이념에 바탕한 5대 가치 경영을 통해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순서 가나다 순〉

총장 후보로서 강점은

허남결 교수는 비판과 행정을 오갔던 경험을 스스로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교수회장으로서 학교 정책을 비판했던 경험과 비서실장으로서 행정을 수행했던 경험을 균형 있게 살린다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의 입장을 넘나든 개인적 경험은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의연 교수는 자신의 강점을 '포용과 통합능력' 으로 자평했다. 이를 통해 조의연 교수는 '대화합의 리더십' 과 '시너자이저(synergizer)형 총장 리더십' 을 펼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모두가 공감 · 공유 · 공영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성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은기 교수는 교외인사로서 객관적으로 동국대를 분석했던 것이 강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갈등을 내부 인사들이 대응하는 방식과는 달리 접근해 원만히 봉합할 수 있다"면서 "공법실무가로서 축적된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과 협력해 학교 발전을 이룰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교수는 다년간의 대학행정 경험과 학내 구성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의 대학 생활을 지탱해준 원만한 품성과 민주적인 소통 능력, 그리고 다년간의 대학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학생-교직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국내외 대학 및 기업과의 폭넓은 인적 네크워크를 바탕으로 학교의 위상과 품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성이 교수는 배려 · 존중 · 화합 · 소통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영' 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교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흑자 경영으로 전환이 아닌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며 "조직의 성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 중심의 경영' 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매번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국현 교수는 '연구 분야 실적 및 우수교원 초빙 노하우' 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교내 행정 보직과 과학기술부 사업에서 900억 원대 사업단 단장을 역임한 경험도 자신의 차별화된 강점임을 강조했다.

송일호 교수는 "자신이 경제 · 경영모델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 학계 · 교계 · 정치권에 폭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했으며, 대학 구성원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용적 리더십을 지녔다"며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신심이 높은 불자"라고 강조했다.

박명호 교수는 자신의 강점으로 '리더십' 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설득과 동참, 신뢰, 공공성 △자율과 책임 △장기 비전 등의 리더십을 가졌음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구성원과의 공유와 공감이 가능한 신뢰가 전제돼야 공동체의 통합이 가능하다"며 "동국대 공동체의 위기 극복은 이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겸 교수는 다양한 대외활동과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김상겸 교수는 현재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 종교법령개정특위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참여하는 등 불교계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대외 · 사회활동으로 폭 넓은 경험과 기획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또한 불교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도 깊다"고 자신했다.

고유환 교수는 국내 유수의 북한 전문가로서 쌓은 대내외활동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대사회와 종단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대학과 종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서 가나다 역순〉

창립 30주년 특별기획
실크로드&돈황 10일
5월17일 / 6월14일 / 7월19일
8월19일 / 9월18일 / 10월11일
대부분 이상욱 법사의 실크로드 명강의로 진행됩니다

한국인을 위한
2019 달라이라마 법문
11월 1일부터 출발, 법문일정:11월 4일-6일(3일간)
주관 :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최 : 여수석천사 진옥스님
A팀(11/1출발) - 달라이라마 **법문만** 8일
B팀(11/2출발) - 법문+**델리관광** 8일
C팀(11/1출발)- 법문과 **남인도** 순례 11일
D팀(11/1출발) - **인도 성지**순례 15일
E팀(11/2출발) - **부탄** 순례 11일
*자세한 일정은 문의주시기바랍니다.

티베트, 수미산 에베레스트 18일
2019년 6월 7일 출발 ~ 6월 24일
8월 20일 출발 ~ 9월 06일
티베트, 수미산 17일
7월 5일 출발 ~ 7월 22일
7월 26일 출발 ~ 8월 11일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마음여행사' 또는 '실크로드여행사' 검색 홈페이지 maumtour.com